여야 3당 "4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우선 처리"

원내대표 회동…규제프리존특별법 우선 처리 합의
노동 4법·세월호법 개정 등 쟁점법안은 절충 못해

여야 3당은 24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도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문에는 처리키로 한 구체적 법안명에 관한 언급은 빠져 있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음식점과 국회에서 잇따라 회담을 하고 4월 국회 문제를 논의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는 또 "(4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모여 "각 당이 제출한 우선처리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여야 3당 대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프리존법은 전남 고흥의 드론산업, 광주의 신재생 에너지산업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역별 특화 산업을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을 두고,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지원해 일자리와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와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전날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즉석에서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와 통화해 이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비록 원칙적인 수준이지만 3당 체제가 정립되고 나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데는 실패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제동을 걸어서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간 충분한 논의과정이 없었던 만큼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아울러 회담에서 "여야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로 가능한 입법을 최대한 실천해 '일하는 국회·생산적인 국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다만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오찬 회동 결과 발표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추대론은 당 망하는 길 호남민심 수용하는 정치 할 것"

더민주 당권 도전 고흥 출신 송영길 당선자

4·13 총선을 통해 4선 의원으로 국회에 복귀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 을) 당선자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김종인 추대론에 대해 "당이 망하는 길이다. 5공 시절 체육관 선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개인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송 당선자는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호텔에서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당 대표 문제를 비롯한 앞으로 의정활동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에 재입성한 게 6년만이다.

▲지역구 선택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계양이 (저의) 3선 지역이고 민주당의 뿌리인 지역이어서 지역구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광주 출마를 고민한 적도 있었다.

-더민주는 호남에서 참패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문재인 전 대표 체제부터 호남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다. 또, 호남을 대변할 대권 후보도 없었다. (호남인들은) 왜 우리는 항상 남의 들러리만 서야 하는가? 라는 자괴감도 있었을 것이다.

-이사장을 맡고 있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서민들의 주택문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대책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인천시장 시절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송영길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출구 전략을 만들어 내고,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서 추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경제 분야에 역점을 두게 되나.

▲그렇다. 또, 외교통일분야에도 나름의 강점이 있는데, 두 개의 분야를 결합시켜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외교를 제대로 해서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탈출구를 찾아볼 생각이다.

-김종인 대표 합의추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합의추대로 가면 당이 죽는다고 본다. 모든 역동성이 무너진다.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선거를 치렀는데, 총선 민심을 수용할 지도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종인 대표가 잘 할 것 같으면 투표에 나오면 된다. 5공 시절 체육관 선거를 하려고 하는가. 6월 항쟁을 벌써 잊어버렸나?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이번에 중앙정치에 복귀하면 호남정신을 계승하고, 새롭게 호남민심을 수용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자신감 붙은 국민의당, 통합론 대신 '연립정부론'

당 중진들 잇따라 제기…안철수측 "독자 집권도 충분"

국민의당 내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론의 대안으로 후보 단일화를 통한 '연립정부론'이 부상하고 있다. 나아가 총선을 통해 확인한 지지세를 꾸준히 확산시킨다면 단독 집권도 바라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당의 발목을 잡았던 야권 통합론에 대해 총선 대약진을 발판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본격 전환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천정배,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은 광주일보와의 호남 중진 연쇄 인터뷰를 통해 차기 대선에서 연립정부를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민의당 후보의 우월한 경쟁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차기 대선에서 여야의 일 대 일 구도가 다자구도보다는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 민심도 과거처럼 야권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보다는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실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박지원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호남 주도로 독자 집권이 어렵다면 조건이 있는 지지를 해야 한다"며 "대선에서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면 호남은 연립 및 연합 정부 형태로 지지를 해야 하며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호남과 일종의 연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상임대표 측에서는 연립정부를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독자 집권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민심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를 주도한다면 상당한 반향을 모으게 될 것"이라며 "이런 모습에서 비교 우위를 갖는 정당이라면 독자 집권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야권 통합을 대하는 국민의당 분위기가 이처럼 변한 것은 총선 결과에 따른 자신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총선 전에는 통합론에 맞서 수세적으로 독자노선을 고수했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을 바라보는 지금은 연립정부론이나 독자집권론을 통해 통합론의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고려, 정권교체의 구체적 계획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보다는 수권정당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朴대통령 지지율 20%대 급락

1주만에 10%P 빠져…국민의당 첫 야권 1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 지지도가 급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동반 추락했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2일 밝혔다.

갤럽이 지난 19~21일 성인 남녀 100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주보다 10%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취임 이후 가장 낮았던 지난해 1월 4주차, 2월 1주차, 6월 3주차 조사 때의 29%와 동률을 이뤘다. 작년 초엔 연말정산 증세 논란으로, 작년 중반엔 메르스 확산으로 여론이 악화한 바 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0%로 여전히 선두를 지키긴 했지만, 지난주보다 7%포인트 급락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전주보다 8%포인트나 급등, 25%까지 치솟으면서 더민주를 제치고 야권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커피숍 상가 건물 매매(전대정문)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 올 주택
(방 3개 ,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 다용도실)
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융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010-7384-7800

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 3천만~2억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올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 월세 60만 (융 5천)
▣ 매가 1억 1천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 (빌라 원룸)
→ 2층 (11평) 운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융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 월세 45만 (융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1층 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식당,프렌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 월 80만 (융 4천)
▣ 매가 1억 5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 월 42만 (융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010-6834-4800

(주) 대신경매 법 률 경 매
(특수물건 추천)
▣ 전남 장성 삼서
→ (토 3492평,건 5733평) (의료시설)
→ 1층~3층 (의료시설) 전 요양병원 운영
→ 장성 상무대 입구 , 대로변
▣ 감정가 48억 8천 6백 → 최저가 34억2천만
▣ 동구 동명동
→ (토211평,건606평) (근린시설)
→ 1층 (소매점) 2층~8층 (오피스텔 룸)
→ 동명 교회 북측 인근 , 4차선 도로접
▣ 감정가 19억 5천 → 최저가 19억 5천
▣ 서구 양동
→ (토577평,건424평) (숙박시설)
→ 1층 (주차장,카운터) 2층~5층 (숙박시설,40개)
→ 광주은행 동측 인근 , 약 10M 도로 접
▣ 감정가 10억8천→ 최저가 6억8백
▣ 전남 순천 조례동
→ (토2332평,건3960평) (근린시설)
→ 7층건물 (수영장,사우나,골프장,주택,헬스) 복합 건물
→ NC백화점 부근 , 대단위 아파트 단지, 순천IC 중심지 대로변
▣ 감정가 140억 → 최저가 64억5천
▣ 서구 화정동
→ (토 800평 , 건 2567평) (돔 나이트)
→ 광천터미널 뒤편 위치 / 현 나이트 운영중
→ (나이트 직영, 터미널 부근 투자 가치 추천)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2억
▣ 북구 운암동
→ (토 66평 , 건 194평) (근린시설)
→ 1층~5층(사무실) 지하(음식점) , 6차선도로 접
▣ 감정가 7억 4천 → 최저가 7억 4천
010-6832-97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